

에너지융복합 중심지 도약 발판 마련

전북도,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확정 태양광·해상풍력·그린수소 중점 육성단지 조성

전북도 새만금에 국가에너지산업의 융복합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확실한 발판이 마련됐다.

도는 산업부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공모사업에 재생에너지 융합산업 글로벌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가 최종 선정되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비전 선포 후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기반이 없어 산화연의 집적화가 다디게 진행되었으나 이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으로 에너지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고 R&D-실증-사업화에 필요한 획기적인 지원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며 밝혔다.

특히, 도는 이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을 통해 새만금에 에너지발전 사업단 진행되어 기업 또는 전문기관의 집적화와 일자리 확충에 대한 파급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에 공모한 산업부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사업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2017년 12월 12일)에 근거해 서면과 발표심사를 통해 전북과 광주·전남이 최종 확정됐다.

새만금 지역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태양광 3GW, 풍력 1GW) 및 실증 가능한 부지를 보유하고 있고,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관련된 연구기관을 포함한 혁신기관, 기업이 집적할 수 있어 8개 평가지표 모두 우수등급을 획득해 단지 조성에 최적으로 평가됐다.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새만금 권역을 중심으로 1단계 수상태양광, 해상풍력, 2단계 그린수소를 중점산업으로 선정하고 재생에너지 융합산업 글로벌 중심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북도는 새만금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와 이번 단지 지정으로 지원되는 혜택을 활용해 에너지특화기

업 100개를 중점 육성할 계획이다. 도는 100개의 기업이 입주해 가동할 경우 연간 1조3886억원의 생산, 3557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3791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북이 이번 단지 지정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은 에너지중점산업 지원, 에너지 특화기업 지원, 전문연구기관 지원, 전문인력양성 지원과 이외에 종합지원센터 구축 등이다.

전북도는 이번 단지 지정을 통해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한

만큼 내년부터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조성,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구축, 12MW이상 해상풍력 핵심부품 성능지원 인프라 구축 등을 구체화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에 지정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활용하여 새만금에 에너지기업, 에너지전문기관, 인력양성센터를 확충하고, 수소, 전기자동차 등 에너지 기술·산업의 융복합을 추진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얼굴보다 큰 고구마' 도당어린이집 원아들이 6일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에서 열린 고구마의 재발견 특별전시회장을 찾아 전시된 고구마를 만지며 즐거워하고 있다.

2020학년도 대입 수능 '주일 앞으로'

도내 수험생 1만9159명 응시

시험은 14일 치러져 내달 4일 성적 발표

도교육청, 부정행위 방지 대책반 가동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6일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처리지침을 전달하고, 시험장 운영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지역 수능 응시생은 1만9159명이다. 시험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등 6개 시험지구 및 군단위 61개 시험장 724개 시험실에서 치러진다. 전체 운영 요원은 3817명으로 시험장 운영요원 1298명, 시험감독관 2191명, 호송 및 경비경찰 256명이다.

청각, 지체, 뇌병변 운동장애 학생 등 특별관리대상자 13명은 동압차출학교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며, 뇌병변 등 운동장애 학생은 일반 학생의 1.5배 시험시간이 주어진다.

수험생 예비소집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각 고사장별로 실시하며, 수험표는 원서를 접수했던 출신고등학교나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개발접수자)에서 배부한다. 성적은 다음달 4일 발표할 예정이다.

수험생은 14일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해야 하며, 신분

증과 수험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수능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반도 가동한다. 시험 당일 급속탐지기를 이용해 반입금지 물품을 점검하고 부정행위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 워치 등),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렌,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등이다. 단, 통신·결제기능, 전자식 화면표시기 없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는 반입가능하다.

이밖에도 수험생은 수험표 교부 시 배부되는 수험생 유의사항 및 동영상을 통해 답안 작성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사전 숙지해야 한다.

전북도교육청은 수험생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사전예방을 최우선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61개 시험장에 3단계에 걸친 시험장 방송점검을 실시하고, 지진에 대비해 시설 안전점검을 마무리 한 상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험생들은 남은 기간 동안 심신의 안정을 취하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시가 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전담 조직을 전진 배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사회연대, 농업, 통합돌봄 기능 등을 강화해 가장 인간적인 도시를 구현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시는 사람·생태·문화와 따뜻한 일자리가 있는 4대 시정 핵심가치를 실현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신성장산업본부 국단위로 기구조립 및 명칭변경 △한시기구(사회적경제지원단) 연장 및 명칭변경 △원활한 시정현안 추진 민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기구·인력 등 조정 △국가정책 이행에 따른 인력보강 등을 골자로 한 행정기구 개편안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경제전담 조직 전진 배치

신성장본부 명칭 변경 등... 전주시, 조직개편안 입법예고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기존 신성장산업본부를 국 단위 기구로 조정, 탄소·수소·드론 등 신성장산업 육성과 일자리정책, 세정업무 등을 총괄할 '신성장경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전진 배치했다.

또한 이웃과 더불어 사는 따뜻한 경제 실현을 위한 한시기구인 사회적경제지원단의 존속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한편, 다양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과 연대해 킴바이 없

는 사회적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명칭을 '사회연대지원단'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기존 5급 기구(과 단위)였던 '농업기술센터'를 농정기구인 친환경농업과, 동물복지과, 완산·덕진구청 농축산관리팀 등과 통합해 4급 기구(국 단위)로 직급을 상향기로 했다.

과 단위로는 △국가정책과 예산 대응 △지역대학들과 지자체 협력사업

발굴 및 중앙공모사업 대응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협력 등을 위한 미래전략혁신과가 신설될 예정이다.

현재 팀 단위인 '통합돌봄총괄팀'은 '통합돌봄과'로 확대 개편된다. 또, 안전한 먹거리인 지역 농산물의 생산부터 유통·소비까지 지원하는 기존 '전주푸드팀'은 '먹거리정책과'로 조직이 확대된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 전주시 공무원 정원은 2160명으로 40명이 늘어나지만 증원인력의 상당수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국가정책배정 인력 분이며, 입법예고된 전주시의회 제365회 2차 정례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A고교 시험답안지 조작 감사결과 발표

도교육청, "답안지 관리 체계 문제점 개선 필요"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A고교에서 발생한 한 학생의 시험 답안지 조작 의혹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답안지 조작 사건에 교무실무사는 처음 개입했다 고 주장하며, 해당 학생의 아버지는 공범을 전면 부인했다.

또한 답일 CCTV는 전면 삭제됐다. 이는 고장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인지는 판단이 불가하다고 전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OMR 답안지

를 수정할 때 수정테이프 사용여부나, 감독관 날인이 없어 조작유무 판단 불가 등 A고교의 답안지 관리 체계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다"며, "향후 강화된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학생에 대한 상담 강화 등 심리치료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A고교 시험지 답안 조작 사건에 대해 검찰 고발과 함께 수사 의뢰를 했다.

/장은성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ol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